

원하청 고용구조 및 고용변동

이 시 균*

I. 들어가며

기업 간의 원하청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핵심적 의제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와 그로부터 비롯되어 나타나는 원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또한 원하청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으며,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하청 관계 간 상생관계의 구축 및 격차해소에 관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원하청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원하청 관계의 불공정성, 원하청 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 등에 관한 논의는 자동차, 조선, 전자업종 등의 특정 업종에서만 집중되어 왔다. 특히 원하청 관계 속에서의 고용측면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하청 관계와 고용과의 관계가 덜 중요하기에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제약은 전반적인 원하청의 문제를 진단할 통계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원하청 간의 고용현황 및 고용변동에 대한 논의는 자료의 제약에 의해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특정 산업에서 다루는 고용문제도 고용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원하청 간 고용분석은 원하청 연결망 실태조사 자료가 구축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업데이터 DB를 기반으로 연결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 자료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하면서 원하청 간 고용현황 및 고용변동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였다. 연결망에 포함된 사업체 수는 54,412개, 종업원 수는 2,919천 명으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원청사업체 수는 378개소, 종업원 수는 866천 명으로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siju0428@keis.or.kr).

상당수의 원청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원하청 간 고용현황 및 고용변동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원하청 간 거래관계로 인해 고용에도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요 업종별로 원하청 간 고용현황 및 고용변동을 비교하여 업종별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원하청 고용개괄

원하청 연결망 실태조사 자료와 고용보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원하청별로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원청사업체 수는 365개소, 피보험자 수는 683천 명으로 나타났고, 하청사업체 수는 23,068개소, 피보험자 수는 1,001천 명 수준으로 확인된다.¹⁾

2014년 기준으로 1차 하청사업체 수는 13,424개소, 피보험자 수는 80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당 피보험자 수는 60명으로 확인되었다. 2차 하청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수는 7,175개소, 피보험자 수는 164천 명, 사업체당 피보험자 수는 23명으로 1차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3차의 경우 사업체 수는 1,860개소, 피보험자 수는 27천 명, 사업체당 피보험자 수는 1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원청사업체 피보험자 수의 비중은 40.5%로 나타났으며, 하청사업체 피보험자 수의 분포도 1차 하청사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차 하청사업체의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원하청 고용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분석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2차 이상의 소규모 하청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이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전체 피보험자 대비 하청비율은 59.4%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업체의 원하청 구분이 완전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 2>의 업종별 하청비율은 상호 간의 중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피보험자 대비 하청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조선이고, 1차금속, 전력, 기계,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음료, 의류섬유업종은 비교적 하청비율이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업종에서 피보험자 기준 하청비율은 84.3%로 가장 높았고, 1차금속은 82.3%, 전력은 82.2%, 기계는 81.6%, 자동차는 80.6%로 높았다. 주력 제조업에서 주로 하청비율이 높았고, 대규모 사업체가 존재하는 업종인 경우에

1) 실태조사 결과에서 연결망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연결차수가 확인이 되지 않은 사업체 수는 26.7천 개소, 피보험자 수는 780천 명이었으며, 연결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수는 75,187개소, 피보험자 수는 2,038천 명으로 나타났다.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업종에서 하청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연결차수별 사업체 수 및 피보험자 수(2014년 기준)

(단위: 개소, 명)

연결차수	사업체 수	피보험자 수	사업체당 피보험자 수
원청사업체	365	683,219	1,872
하청사업체	23,068	1,001,019	43.4
1차 하청	13,424	802,298	60
2차 하청	7,175	163,654	23
3차 하청	1,860	27,132	15
4차 하청	435	6,319	15
5차 하청	120	1,220	10
6차 하청	33	304	9
7차 하청 이상	21	92	4
전 체	23,433	1,684,238	72

자료: 원하청 연결망 실태조사; 고용보험 행정자료.

〈표 2〉 주요 업종별·원하청여부별 현황

(단위: 개소, 명, %)

	사업체 수		피보험자 수		피보험자 수 하청비율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전자	25	8,262	196,713	397,622	66.9
자동차	12	5,465	56,038	232,238	80.6
조선	16	7,145	45,363	243,700	84.3
통신	9	2,936	48,664	164,238	77.1
시스템통합	33	2,619	41,782	85,458	67.2
건설	40	6,820	55,171	181,500	76.7
1차금속	25	4,620	32,647	151,645	82.3
기계	29	3,835	28,634	127,058	81.6
도소매	62	2,817	122,200	119,994	49.5
전력	11	1,190	7,770	35,773	82.2
식음료	57	1,041	50,382	37,409	42.6
의류섬유	51	510	20,190	9,030	30.9
전기	10	804	5,965	23,893	80.0
석유화학	24	3,795	43,051	114,609	72.7

자료: 원하청 연결망 실태조사; 고용보험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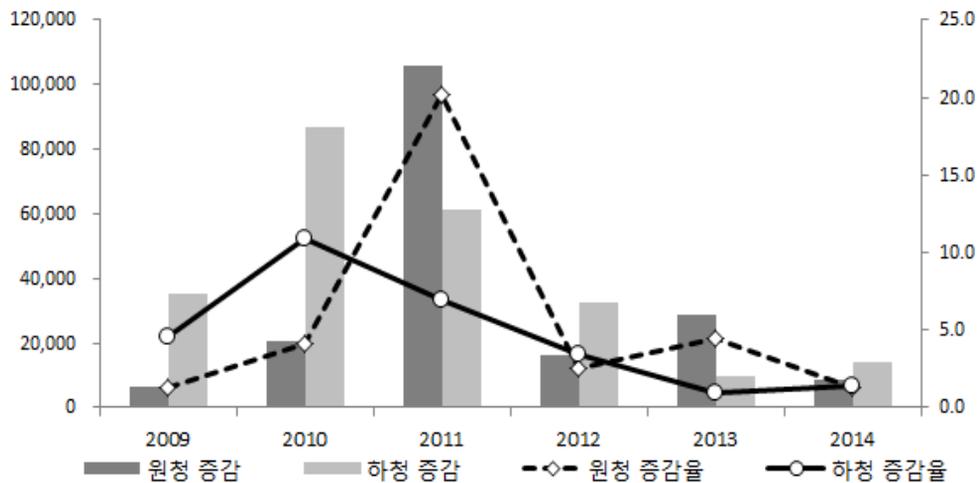
Ⅲ. 원하청 고용변동 추이

2008~2014년 기간 동안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증감률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원청사업체가 하청사업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원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2008년에 497천 명에서 2014년에 683천 명으로 늘어나 37.5% 증가하였고, 하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2008년에 762천 명에서 2014년에 1,001천 명으로 3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피보험자 수 추이변화를 보면 원청사업체의 경우 2011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청사업체의 경우 2010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원하청별 피보험자 수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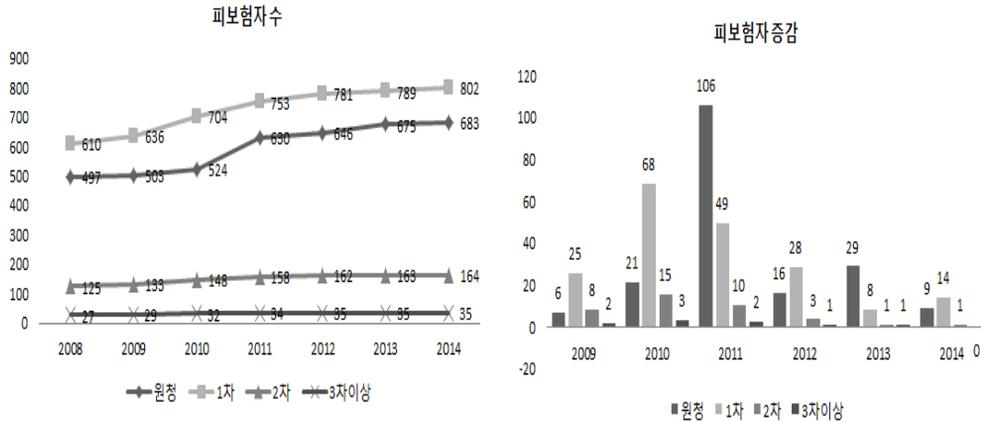
(단위: 명, %)



하청사업체에서 피보험자 변동 추이를 보면 1차 하청사업체에서 주로 고용이 증가하였고, 2차와 3차 이상 하청사업체에서 고용증가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1차 하청사업체의 경우 2010년에 704천 명에서 2011년에 753천 명으로 늘어나고 2014년에 802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차 하청사업체의 경우 2010년에 148천 명에서 2014년 164천 명으로 이 기간 동안 약 10% 증가하였고, 3차 이상 하청사업체의 경우에도 2010년에 32천 명

[그림 2] 원하청 피보험자 수 및 증감 변화

(단위: 천 명)



에서 2014년에 35천 명으로 나타나 고용증가 수준은 미미하였다. 연도별 고용변동 추이를 보면 2011년과 2013년을 제외하면 1차 하청사업체의 고용증가는 원청사업체보다 컸고, 2차 이상 사업체 고용증가보다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주요 업종별로 원하청 간 고용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원청사업체의 경우 2010년 이래 전자, 석유화학, 도소매, 1차금속, 전기, 시스템통합 업종에서 피보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전력, 통신업은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였고, 식음료 및 의류섬유는 약간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청사업체의 경우 2010년 이래 자동차, 시스템통합, 조선, 통신, 1차금속 등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의 고용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신업, 자동차, 조선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종의 원청사업체는 2010~2014년 기간 동안 고용이 88.0% 증가하였고, 하청사업체는 12.6% 증가하였으며, 시스템통합은 원청사업체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8.3%, 하청사업체는 18.4% 증가하였다. 통신업 원청사업체는 2010년 이후 고용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나 하청사업체는 15.1% 고용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와 조선업도 원청사업체보다 하청사업체의 고용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업종별로 하청활용 비율²⁾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전력, 자동차, 조선, 통신업에서 활용비율이 높아진 반면 전자, 전기, 석유화학, 1차금속은 활용

2) 하청활용 비율은 원청사업체 피보험자 대비 하청사업체 피보험자 수로 측정하였다.

〈표 3〉 원하청여부별 · 주요 업종별 피보험자 추이 변화

(단위 : 명, %)

		2008	2010	2012	2014	2008~ 2010	2010~ 2014
원청	전자	90,867	104,634	184,800	196,713	15.2	88.0
	자동차	56,484	52,857	54,602	56,038	-6.4	6.0
	조선	43,259	43,391	44,850	45,363	0.3	4.5
	통신	53,158	52,581	56,684	48,664	-1.1	-7.4
	시스템통합	31,397	35,309	40,073	41,782	12.5	18.3
	건설	50,684	51,127	56,743	55,171	0.9	7.9
	1차금속	25,208	25,858	24,223	32,647	2.6	26.3
	기계	22,734	25,138	27,625	28,634	10.6	13.9
	도소매	84,312	91,991	102,648	122,200	9.1	32.8
	전력	9,171	9,385	7,910	7,770	2.3	-17.2
	식음료	45,011	47,743	49,854	50,382	6.1	5.5
	의류섬유	18,117	19,768	20,591	20,190	9.1	2.1
	전기	4,387	4,736	5,599	5,965	8.0	26.0
	석유화학	25,010	26,114	40,351	43,051	4.4	64.9
하청	전자	299,618	353,062	388,078	397,622	17.8	12.6
	자동차	178,302	194,816	221,184	232,238	9.3	19.2
	조선	190,716	210,490	239,153	243,700	10.4	15.8
	통신	110,762	142,734	159,721	164,238	28.9	15.1
	시스템통합	63,819	72,204	82,412	85,458	13.1	18.4
	건설	155,573	171,857	182,502	181,500	10.5	5.6
	1차금속	120,304	130,981	148,398	151,645	8.9	15.8
	기계	102,062	115,098	124,810	127,058	12.8	10.4
	도소매	91,761	106,424	118,248	119,994	16.0	12.8
	전력	30,577	33,641	35,282	35,773	10.0	6.3
	식음료	29,158	32,427	35,982	37,409	11.2	15.4
	의류섬유	7,971	8,831	9,147	9,030	10.8	2.3
	전기	18,978	22,154	23,895	23,893	16.7	7.8
	석유화학	90,104	101,469	114,785	114,609	12.6	12.9

자료 :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표 4〉 주요 업종별 하청활용 비율 추이 변화

(단위: %, %p)

	2008	2010	2012	2014	2010~2014
전자	329.7	337.4	210.0	202.1	-135.3
자동차	315.7	368.6	405.1	414.4	45.9
조선	440.9	485.1	533.2	537.2	52.1
통신	208.4	271.5	281.8	337.5	66.0
시스템통합	203.3	204.5	205.7	204.5	0.0
건설	306.9	336.1	321.6	329.0	-7.2
1차금속	477.2	506.5	612.6	464.5	-42.0
기계	448.9	457.9	451.8	443.7	-14.1
도소매	108.8	115.7	115.2	98.2	-17.5
전력	333.4	358.5	446.0	460.4	101.9
식음료	64.8	67.9	72.2	74.3	6.3
의류섬유	44.0	44.7	44.4	44.7	0.1
전기	432.6	467.8	426.8	400.6	-67.2
석유화학	360.3	388.6	284.5	266.2	-122.3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과 통신업의 경우 원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줄어들고, 하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늘어나면서 하청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원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약간 증가한 반면 하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나면서 하청비율이 높아졌다. 전자, 전기, 1차금속, 석유화학 업종은 원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하청활용 비율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하청의 활용정도는 주요 업종별로 상이한 양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의 고용변동 간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선 업종효과가 작용하는데, 해당 업종의 경기변동에 의해서 원하청사업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원하청 간에 고용변동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 시스템통합, 기계, 1차금속, 석유화학 업종과 같은 업종에서 원하청 간 고용변동 방향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하청 간 고용이 보완관계를 보이는 경우, 하청활용성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의 변화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원하청 간에 고용변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거나, 변동폭이 큰 경우의 업종이 존재하는데, 자동차, 조선, 통신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종은 2008년 이후 원청사업체에서 피보험자의 감소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반면 하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수는 상대적으

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원청사업체보다 하청사업체에서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업종에서 경기불황에 대응하는 고용전략으로 하청관계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원하청 간 노동이동 현황

<표 5>는 원하청 간 상향이동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과기간별 노동이동 추이를 보여준다. 2011년 말에 하청사업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가 원청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1년 경과 후 0.5%, 2년 경과 후 0.8%, 3년 경과 후 1.0%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원청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1년 경과 후 93.3%, 2년 경과 후 91.0%, 3년 경과 후 88.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청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1년 경과 후 90.0%, 2년 경과 후 83.7%, 3년 경과 후 79.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청사업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가 기타 부문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년 경과 후 9.5%, 2년 경과 후 15.4%, 3년 경과 후 19.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하청사업체에서 원청사업체로 노동이동 하는 경우는 3년 경과기간에 겨우 7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거의 노동이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원청사업체가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청사업체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청사업체에서 원청사업체로 이동성이 낮은 업종은 자동차, 조선, 1차금속, 기계, 전

<표 5> 원하청사업체별 노동이동 실태

(단위: 천 명, %)

	t+1			t+2			t+3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504	3	34	491	4	45	478	6	55
하청	3	621	66	6	578	106	7	546	137
기타	7	24	1,895	13	37	1,877	15	47	1,865
원청	93.3	0.5	6.2	91.0	0.8	8.2	88.6	1.2	10.2
하청	0.5	90.0	9.5	0.8	83.7	15.4	1.0	79.2	19.8
기타	0.4	1.3	98.4	0.7	1.9	97.4	0.8	2.4	96.8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표 6〉 주요 업종별 하청사업체 피보험자의 노동이동 추이

(단위: %)

	t+1			t+2			t+3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전자	0.5	91.7	7.9	0.8	86.3	12.9	1.0	82.5	16.5
자동차	0.2	91.9	7.9	0.4	86.8	12.8	0.5	83.0	16.5
조선	0.3	90.7	9.0	0.4	84.7	14.8	0.5	80.1	19.4
통신	0.7	88.9	10.3	1.6	80.9	17.5	1.9	76.3	21.8
시스템통합	0.7	89.0	10.3	1.6	81.3	17.1	1.9	75.9	22.2
건설	0.5	88.9	10.6	0.7	82.2	17.0	0.9	77.1	22.0
1차금속	0.3	91.0	8.8	0.5	84.9	14.6	0.6	80.9	18.4
기계	0.3	90.8	8.9	0.4	84.6	14.9	0.5	80.5	19.1
도소매	0.6	85.7	13.6	1.2	76.9	21.8	1.5	71.0	27.6
전력	0.5	82.6	16.9	1.2	73.7	25.1	1.5	67.4	31.1
식음료	1.0	87.0	12.0	1.7	78.9	19.5	2.0	71.5	26.5
의류섬유	0.4	89.6	10.0	0.6	83.9	15.5	0.8	79.3	19.9
전기	0.1	91.0	8.9	0.2	85.5	14.3	0.3	81.0	18.7
석유화학	0.4	90.6	9.0	1.0	83.9	15.1	1.2	78.9	19.9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

기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청사업체로의 이동이 높게 나타난 통신, 시스템통합과 같이 정보통신 부문이나, 도소매, 식음료, 전력업종에서도 다른 업종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동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자동차, 전자, 전기, 조선, 1차금속, 기계업종의 하청사업체 피보험자가 하청사업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업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전력, 도소매, 식음료 업종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업종은 하청사업체에 머무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V. 요약 및 시사점

이 글은 원하청사업체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고용변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된 논의는 우리나라 주력업종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원하청 고용구조가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지, 그와 관련하여 고용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판단할 만한 실태자료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사례중심의 논의가 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규모의 원하청 연결망 자료가 구축되고, 고용보험 행정자료와 연계한 자료를 통해 원하청 간 고용현황 및 고용변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고용보험 행정자료의 한계상 전체 고용을 포함하지는 못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준에서 원하청 간 고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원하청 간 고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청사업체에서 고용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하청에서도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이상 하청사업체에서의 고용증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원청사업체는 2010년 이후 30.3%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1차 하청사업체는 14.0%, 2차 하청사업체는 10.3%, 3차 이상은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용변동을 살펴보면 원청사업체는 8.4%, 1차 하청은 6.5%, 2차 하청은 3.2%, 3차 이상 하청은 4.2% 고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업종에서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의 고용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신업, 자동차, 조선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종의 원청사업체는 2010~2014년 기간 동안 88.0% 고용이 증가하였고, 하청사업체는 12.6% 증가하였다. 시스템통합은 원청사업체의 경우 이 기간 동안 18.3%, 하청사업체는 18.4% 증가하였다. 반면 통신업 원청사업체는 2010년 이후 고용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나 하청사업체는 15.1% 고용이 증가하였다. 자동차업종의 원청사업체는 2010년 까지 고용감소를 경험하였고 2010년 이후 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하청사업체는 2010년 이후 19.2%의 비교적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원청사업체는 2010년 이후 4.5%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하청사업체는 1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하청활용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414.4%), 조선(537.2%), 1차금속(464.5%), 기계(443.7%)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은 2010년 이후 하청활용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조선업은 원하청 간 고용변동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넷째, 모든 업종에서 원하청 간 노동이동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정보통신부문이나 도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하청에서 원청으로의 노동이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원하청 간 이중화가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분석하는 자료상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위를 가진 경

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하청 고용구조의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현실에서 원청사업체에 속한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하청사업체에 속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근 자동차와 조선업종의 경우에 원청사업체보다 하청사업체에서 고용증가가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기간에도 원하청 간 노동이동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하청 간에 생산성 및 종사자의 숙련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산성 및 숙련격차가 구조화되는 경우에 전체 생산성 및 숙련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원하청 관계를 기업 간의 자본관계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11]